

나보아 발전과장과 코스모스 소녀

2015년 6월 0일 새벽 6시 월성 3호기 주제어실. 나보아 발전과장은 발전일지를 쓰고 있다. 나과장은 한국 최초의 여성 원전 발전과장이다. 그녀의 나이는 올해 서른 다섯. KNRC 부설 한국원자력대학 졸업 1기이다.

재학중 줄곧 장학금을 받았고 1등으로 졸업하면서 RO 시험에 합격했으며 캐나다 연수를 2년 다녀온 뒤 다시 SRO 시험에 합격했다.

운전원 생활이 시작된 6년 후 그녀는 발전과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도 '남자 운전원들과 야간 근무조 일을 해야 하는데, 글썄...' 하며 임명을 주저했지만 이제 그녀는 회사에서 촉망받는 우수한 발전과장이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원전 소장과 그리고 최초의 여성 한국원자력발전주식회사 사장을 꿈꾼다.

그녀의 어린 때 꿈은 비행기 조종사였다. 거대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러나 중학교 때 가족과 함께 경주에 여행 갔다가 인생이 바뀌었다. 문무왕릉 지역을 방문하면서 밤에 월성 원전을 지났는데, 강렬한 오렌지색 야간 조명등 휘황한 거대한 원전을 보면서 그녀는 충격을 경험했다. 그녀는 곧 원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KNRC가 한국원자력대학을 설립하자 이에 응시, 수석으로 합격한 것이다.

업무 교대하러 들어오면서 본 월성 원전은 역시 장관이었다. 밤바다 위에 휘영청 달이 떴다. 하늘은 밝고 구



름이 빠르게 달을 스쳐 지나간다. 하늘 높이 뜬 달은 하얗게 반짝이는 길을 물위에 내었다. 나과장은 밤의 원전을 사랑한다. 이때 그녀는 로맨티스트가 된다. 수 백개의 오렌지색등...

그녀는 영화 동아리에서 본 스피버그의 영화 「클로스 인카운터(외계와의 조우)」의 한 장면을 머리에 떠올린다. 우주에서도 이 불빛은 보일까? 이 램프들을 점멸시켜 메시지를 보내면 슬픈 듯한 눈매의 머리 큰 외계인들을 실은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올까? 이것은 거대한 우주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시그널...

밤의 원자력발전소는 한 마리 거대한 짐승이다. 밤안개 속에 이 짐승은 조용하게 었드려 있다. 그녀는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과장은 이 거대하고 조용한

“

나 과장이 근무하는 주제어실에서는 발전소 전체를 카메라로 볼 수 있다.

주제어실 컴퓨터 뒤나 터빈 건물 현장 운전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보인다.

이 MCR에도 카메라가 있어 발전부장이 필요하면 휴대용 단말기로 모니터할 수 있고 발전소장도 때로 들여다 본다.

본사 안전감찰팀에서도 모니터한다. 규제 기관이나 지역 주민도 신청하면 그 녹화 테이프에 접근할 수 있다.

”

짐승을 자신의 손으로 길들였고 이제 그를 움직인다. 그녀의 발 앞에 엎드린 기계덩어리... 짐승.

그녀가 발전과장이 되었을 때 모 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제목을 '미녀와 야수(Beauty and Beast)' 라고 뽑았었는데 그녀는 면구스러웠다. 뭐 내가 그렇게 미녀는 아닌데... 자신의 손길에 의해 조종되는 야수, 아니 짐승이 그녀는 사랑스럽다. 그녀는 아직... 독신이다.

나 과장이 근무하는 주제어실에서는 발전소 전체를 카메라로 볼 수 있다. 주제어실 컴퓨터 뒤나 터빈 건물 현장 운전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보인다.

이 MCR에도 카메라가 있어 발전부장이 필요하면 휴대용 단말기로 모니터할 수 있고 발전소장도 때로 들여다 본다. 본사 안전감찰팀에서도 모니터한다. 규제 기관이나 지역 주민도 신청하면 그 녹화 테이프에 접근할 수 있다.

처음 운전원들은 당연히 이 카메라 설치를 반대했다. 사생활 침해라고 모두 들고 일어서자 잠시 주춤했지만 2년 전 ** 0호기 주제어실에서 운전원이 자리를 비우고 휴게실에서 자는 사이 상황이 발생했다. 어, 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졌고 그 후 운전원들은 MCR에 카메라 설치 요구를 수용하였다.

사고 친 그 운전원은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좀 소심했다. 오래 사귄 여자 친구와 깨어지고 화합에 슬마신 게 그리 되었는데 월성 지역 사회와 신문에서 한참 시끄러웠다.

이제 운전원들은 6개월마다 적성 검사를 받는다. 원전에 심리 전문가가 상주하여 전체 직원들의 스트레스 문제를 상담해 주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Big brother)의 등장을 예언했지만 이제 곳곳에 수많은 스몰 브라더(Small brother)들이 있다. 고속도로 전 구간에는 슬라이드식 카메라가 있다.

모든 자동차에는 출고시부터 엔진 속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는 칩이 부착되고 이것은 고유 주파수를 발송한다. 이제 모든 차는 도로의 수색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차량 도둑은 이제 없어졌지만 어디 출장 간다고 해놓고 딴 곳에서 몰래 데이트를 즐길 수도 없게 되었다.

휴대폰에 내장된 칩, 주민등록증에 심어진 칩은 사람들의 행적을 얼음처럼 투명하게 했다. 모든 통화 기록은 녹음되어 10년까지 보존되고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그것을 해석하여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업무 교대하고 건물을 빠져 나오자 이미 날이 환하고 바다의 표정은 상큼하다. 나 과장은 한 달 전에 산 스포츠카 '유비크'의 시동을 걸고 카오디오를 듣다.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된 한국 여가수 보아의 노래, 「Cosmos girl(코스모스 소녀)」가 흘러나오고 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